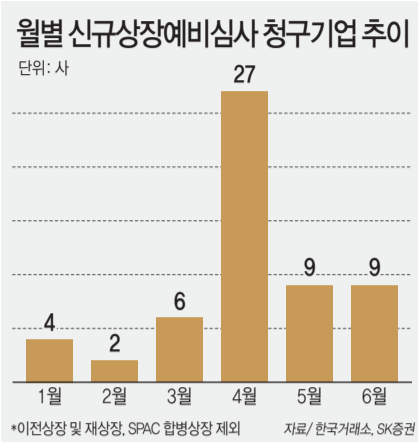


# IPO 슈퍼워크? ‘새내기株의 배신’... 증시 되레 발목

이번주 코원테크 등 6곳 수요예측 상반기 상장 18곳 중 주가상승기업 웹케시·에코프로비엠 등 4곳 불과



이번 주 6개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슈퍼워크’가 될 전망이다. 상반기에 이어 7월에도 ‘새내기주’의 주가가 부진해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만 슈프리마아이드, 한국바이오젠, 덕산테크피아, 세경하이테크, 그린플러스, 코원테크 등 총 6개사가 수요 예측을 진행한다.

지난주에도 대모엔지니어링이 9일에서 10일까지, 윌링스가 10일에서 11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했으며, 이번 주 공모주 청약이 예정돼 있다. 또 현재 코스닥 시장에 28개 기업이, 코스피에서 3개 기업이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 중이다.

◆ 새내기주 주가 하락에 IPO 우려 증폭  
지난 11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

한 교육업체인 아이스크림에듀의 주가가 공모가인 1만5900원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핀테크 시장의 ‘대어’이자 코스닥 시장 기대주로 관심을 모은 세틀뱅크도 상장 첫날인 지난 12일 시초 대비 2100원 오른 5만1600원에 장을 마감했지만 상장 이틀째인 이날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 같은 주가 하락세는 올해 상반기에 두드러져 상반기 IPO 기업 중 시초 대비 주가가 상승한 공모주는 15일 기준 상반기 상장한 18개 기업 중 웹케시, 천보, 컴퍼니케이, 에코프로비엠 등 4개 종목에 그쳤다. 또한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가 낮은 기업도 15일 기준 9개 종목에 달한다.

상반기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한 기업 관계자는 “우리는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신규 상장했지만 같은 업종에서 IPO를 준비하던 여러 기업이 상장을 포기했다”며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증시 흐름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우리도 주가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새내기주의 주가가 상반기에 이어 7월에도 부진하면서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IPO 시장이 분주해졌지만 지난 4월 27개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가 물리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며, 5~6월 상장예비심사 청구건수는 각각 9건에 그쳤다”며 “하반기 IPO 시장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나 연구원은 이어 “수요예측, 공모청약경쟁률, 상장 후 수익률 흐름이 연초 대비 약해졌다”며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기업이 신규 상장했는데 하반기부터 기술력 검증에 많은 시간이 투

입돼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계획 중인 기술성장기업들의 최종 상장완료 시점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올해 ‘인보사 사태’로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상반기 새내기주 중 마지막으로 코스닥에 합류한 압타바이오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등 영향을 받았다. 하반기에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장기화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상황여서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한 기업의 관계자는 “최근 증시에서 신규 상장 기업의 주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면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증시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만큼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하반기 IPO 시장 상반기보다 개선 기대  
하지만 일부에서는 올해 하반기 IPO 시장에서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추진하면서 2분기 주춤했던 IP

O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 것이라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IR큐더스 이진영 수석은 “올해 IPO 시장은 다수의 기업들이 수요 예측에 성공하며 활기차게 시작했지만 2분기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며 “하반기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IPO를 추진할 예정으로, 공모규모가 작았던 지난해에 비해 더 큰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IPO 시장에는 신재생에너지, 핀테크,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등도 포함돼 업종 다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며 “기업 가치가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SK바이오팜이 코스피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녹십자웰빙 등 상반기 없었던 대어들의 상장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다만 올해 1분기 상장을 계획하던 바디프렌드와 흠플러스트리츠 등이 상장을 철회했고 현대오일뱅크, 교보생명, 호텔롯데 등 대기업이 내부사정으로 상장을 연기해 대어로 꼽히는 기업 공개가 거의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금호산업, 순천에 20년만의 새 아파트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청약시작

금호산업은 지난 12일 문을 연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견본주택에 개관 3일간 2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15일 밝혔다.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는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85번지 일원에서 지하 1층, 지상 최고 16층, 6개동 총 4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가구 순천에서 희소한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60만원대로 인근 분양 단지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2회 분납(1차 1000만원 정액제) 및 중도금(60%) 무이자로 진행된다.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청약접수는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인터넷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4일이며, 당첨자 대상 정당계약은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단위: 십억원, 결제기준)

구분	2018년	상반기	하반기	2019년	5월	6월	보유잔고
주식	△6,678	△3,900	△2,778	5,225	△2,917	244	559,848
채권	15,625	12,021	3,604	10,939	7,076	5,801	124,540
합계	8,947	8,121	826	16,164	4,159	6,045	684,388

\*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액 ‘사상최대’

금감원, 주식은 순매수 전환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했다. 채권시장에서도 순투자자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상장채권 보유고가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중 외국인인상장주식 2440억원을 순매수해 한 달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했다. 코스피시장에서 5500억원 규모로 사들였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3100억원 가

량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미국이 각각 2조원, 300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반면 유럽과 중동은 각각 1조5000억원, 1000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의 순매수 규모가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높고, 미국과 홍콩이 각각 3000억원씩 사들였다. 반면 영국은 1조원 규모로 순매도에 나섰다. 캐나다와 아일랜드도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바닥찍은 네이버 반등은 언제쯤?

## 영업익 30% ↑ ‘핑크빛’ 카카오

네이버 영업이익 1438억 42.6% ↓ 4년간 최저... 향후 전망도 엇갈려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희비

카카오 매출액 7413억 26% 올라 3분기 특비즈 매출 50% 성장 전망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네이버의 매출이 4년간 분기 실적 중 이번 2분기에 영업이익 최저치를 기록하고,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카카오는 2분기에도 성장세를 기록했고, 하반기에도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주가는 올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카카오 주가는 12일에도 전날보다 0.77% 오른 13만1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는 등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 ◆네이버 2분기 실적 중 최저 전망

네이버의 2분기 성적은 자회사인 라인(LINE)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따른 적자로, 2분기 최저가 될 것이라 전망이 엇따르면서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증권사 실적 전망치에 따르면 네이버는 2분기 매출액 1조5800억원, 영업이익 18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2000억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4년간 분기 실적 중 최저치이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이를 더 밑돌 수도 있다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네이버의 2분기 영업이익은 42.6% 감소한 1438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실적은 2분기 광고 성수기 효과와 거래대금 증가로 양호하지만 라인의 공격적 투자로 연결 기준 실적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라인의 투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어서 네이버의 연결기준 실적 부진 역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라인이 진행한 300억엔 규모의 송금 캠페인 결과도 가입자 비중이 높지 않아 일본 간편결제·송금시장 침투는 예상 대비 느릴 것”이라며 “네이버페이 거래대금은 양호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익화 방안이 부족해 향후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네이버가 2분기에 실적 바닥을 확인한 후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 1546억원을 기록해 라인 비용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실적 저점을 찍을 것”이라며 “3분기 이후 대규모 마케팅은 제한되고 광고 성장이 지속되며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 ◆카카오, 영업이익 30% 증가 기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는 2분기 7350억원 매출에 340억원 영업이

익을 거둬 것으로 예상됐다. 카카오의 2분기 영업이익은 광고 매출 증가와 멜론, 카카오페이 성장 등으로 영업이익이 최대 3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한 7413억원, 영업이익은 31.4% 늘어난 363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카카오톡 광고, 선물하기 등 특비즈 매출액은 광고 성수기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14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민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2분기 매출은 486억원, 영업이익은 314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전 분기 거래액 10조원을 기록했던 카카오페이의 거래액 증가로 플랫폼 부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3.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용해온 신규 광고상품인 ‘톡보드’ 부문에서 3분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반기에도 핑크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종원 카카오 사업전략팀장은 6월 26일 ‘톡비즈 세미나’에서 “3분기 안에 톡보드를 오픈 베타 테스트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년 대비 특비즈 매출 50%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채윤정 기자